

주요그룹별 주총 핫이슈

소액주주권… 의장직 분리… 엘리엇 표대결… 회장 연임

〈삼성〉

〈SK〉

〈현대차〉

〈한진〉

》》 1면 '주총시즌 개막...'서 계속

총수 갑질 논란 속 행동주의 도전
한진칼·한진·대항항공 '최대관심'

김학동 생산본부장은 포항제철소장과 광양제철소장을 두루 역임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다. 정탁 마케팅본부장도 포스코 에너지조선마케팅실장과 철강 사업전략실장을 두루 거친 마케팅 전문가다.

이들을 통해 생산과 마케팅 등 현장 경영에 보다 집중,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과 철강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대표이사 체제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재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장인화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올해 장인화 사장은 철강 부문에 집중하고, 최정우



포항제철소

포스코

회장은 회사 전체를 아우르면서 에너지·소재 및 신성장 부문에 집중하는 구도가 예상된다.

최 회장이 '부문별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부사장을 대표이사진에 추가로 선임해 3인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사외이사진에는 박희재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정문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등 3명이 신규 임명된다.

반면 한진그룹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주주 행동주의

투자자와 대기업 오너 경영진 간의 대결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최대 관심 기업은 한진칼·한진·대한항공이다. 한진 그룹은 총수 일가 갑질 논란 속 행동주의 펀드 KCGI의 주주 운동 도전을 받고 있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에 감사·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 한도 제한 등의 안건을 제안했으며, 한진그룹 회장인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이사 연임도 반대하고 있다. KCGI 측은 한진칼 지분을 12.01%, 한진 지분을 10.17%까지 늘린 데 이어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차명 소유(3.8%)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양사 대결의 열쇠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2대 주주(지분율 11.56%)이자 한진칼의 3대 주주(지분율 7.34%)로,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정관 변경안

을 제시, 한진 일가를 압박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각종 갑질과 불·편법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만큼 연임에 대한 여론은 씨늘한 상황이다.

글로벌 헤지펀드 엘리엇의 주주권 행사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역시 주요 관심 기업이다. 엘리엇은 현대차(지분 3% 보유)와 현대모비스(2.6%)에 총 8조3000억 원에 달하는 배당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각 3명과 2명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사가 엘리엇의 배당 요구 및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표 대결이 예상된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 50%에 육박하는 외국인 주주 구성과 국민연금(현대차 8.7%, 현대모비스 9.5%)의 지분 보유로 인해 현대차그룹과 엘리엇 간의 대결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1일 소위로 임관한 신임 간호장교들이 대전 유성구 국군간호사

소위 임관한 간호장교들

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을 마치고 모자를 던지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SKT CEO가 주총서 프레젠테이션

SK텔레콤, 26일 주주총회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받고, 회사 전시관 투어를 하는 주주총회가 열린다.

SK텔레콤은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주주총회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사진)은 지난해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달라진 주총 자리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주총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구술식 영업보고에서 벗어나 박정호 CEO와 4대사업부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경영성과·사업비전·재무현황 등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당일에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SK텔레콤 본사 사옥 내 티움(T.um) 전시관 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투어에 참여하는 주주들



은 최첨단 ICT 기술과 5G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다.

박정호 사장과 4대사업부장은 주주들에게 8대 고객 가치 혁신, 미디어·보안·커머스 중심의 뉴 ICT 사

업 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난해 경영성과를 알리고, 올해 4대사업 성장 전략과 5G 사업 비전을 알릴 예정이다.

초청장과 주주 서한도 발송한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이메일 주소가 확보된 주주들을 대상으로 약 15페이지 분량의 초대장 및 주주 서한을 발송한다. SK텔레콤은 여기에 주총 행사 개편 내용과 함께 경영성과·사업비전·재무현황 등을 담았다. 아마존, 버크셔해서웨이, AT&T 등 해외 기업들은 이미 주주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기업 정보를 상세히 담은 주총 초대장을 보내고 있다.

이번 초대장 및 주주 서한에는 무약정플랜, 안심로밍, 멤버십개편 등 8대 고객 가치 혁신 시행 결과와 플로 출시, 푸-옥수수 통합법인 출범을 위한 MOU체결, ADT캡스 인수, 11번가 5000억원 투자 유치 등 뉴 ICT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성과가 요약돼 있다. 지난해 재무 실적과 5G 사업 비전 내용도 포함됐다.

/김나인 기자 silkn@

상속한 정승인 공고

공고인은 망 이하영 (740817-2*****)의 상속재산의 상속한정승인으로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일반상속체권자와 유증을 받은자는 공고기일내에 그체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5.7사망) 단 공고기일내에 재결 또는 유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서울 가정법원 2017노단1909 상속한정승인 공고인: 이시아, 법정대리인 윤영화 (010-7227-4801) 수리일: 2017년 10월 18일자 한정승인(2019년 2월 21일) 공고기간: 2019년 3월 12일 ~ 2019년 6월 11일 주 소: 남양주시 진접읍 통현로 64(장현리)

'거수기' 사외이사, 회의한번 참석에 880만원

보수 평균 5천만원 최대 9천만원
모든 안건 100% 찬성… 반대 0건

지난해 주요 증권사들의 사외이사는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며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 반면 그들이 한 해동안 쟁여간 보수는 평균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낸 13개 증권사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증권사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는 51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인당 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삼성증권으로 나타났다. 총 4명의 사외이사에게 평균 9042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다음으로 미래에셋대우(인당 평균지급액 6179만원), 유진투자증권(5900만원) 순이었다.

게다가 이들의 1년 연봉에서 이사회를 연 횟수를 나눈 회당 보수를 계산한 결과 사외이사가 회의 한 번에 쟁여간 평균 51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사회가 보통 2시간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시급은 250만원 수준인 셈이다.

회당 보수가 가장 높은 증권사는 KTB 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KTB투자증권은 지난해 총 6번의 이사회를 개최했고, 사외이사들은 회의 당 880만원씩을 쟁여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평균지급액이 가장 높았던 삼

성증권은 지난해 총 14차례 이사회를 열어 회당 지급액은 646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고액 사외이사들이 모든 안건에 100% 찬성을 했다는 것이다. 13개 증권사 48명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반대의견을 낸 안건은 0개다. 오히려 이사회의 절반 가까이를 빠진 사외이사도 있었다.

기업의 경제자가 돼야 할 사외이사가 여전히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나오는 이유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사외이사가 은퇴한 인사들의 부업거리가 되거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는 사외이사 제도 의미를 무색케 한다"면서 "사외이

사는 여러분야 전문가를 영입하고, 합당한 보수를 주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실제 13개 증권사가 올해 주총 안건에 올린 신임 사외이사의 이력을 살펴보면 관료 출신 인사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뤄져야 할 사외이사지만 실제로는 고위 관료출신 인사 모시기에 치중된 분위기다.

A증권사는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고, B증권사는 과거 금융투자협회장 출신 인사와 조달청장 출신,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 인사 모시기에 치중된 분위기다.

A증권사는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고, B증권사는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액면분할' 삼성전자 주주 5.3배로 늘어

지난해 액면분할 효과로 삼성전자 주주가 1년 새 5.3배로 늘었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가총액 1위인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주 수는 76만1468명으로 전년 말보다 61만7094명(42.4%) 증가했다.

삼성전자 주주가 2015년 말 10만7000명 수준에서 2016년 말 6만7000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2017년 말 14만4000명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폭발적인 증가

세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주식 1주를 50주로 조기하는 50대 1의 주식 액면분할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액면분할 전 주당 250만원을 넘던 삼성전자 주가가 분할 직후 5만원대로 낮아지자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주식 매수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작년말 현재 삼성전자 주주를 유형별로 보면 개인 소액주주가 75만4705명으로 99.1%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법인 소액주주(6669개), 최대주주(87명),

250만원 주가→5만원대로 낮아져 주주수 작년말 보다 61.7만명 증가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인 기타주주(6개) 등이다.

보유주식 수별로 보면 지난해 말 현재 100주 이상 5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29.6%로 가장 많고 10~50주 미만(28.6%), 50~100주 미만(16.1%), 500주 이상(14.7%), 10주 미만(11.1%) 등 순이다.

2017년 말에는 1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59.1%로 제일 많고 500주 이상은 3.4%에 불과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손엄지 기자